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 18:15-20	제2독서	코린토1 7:32-35	복음	마르코 1:21-28
--------	------	-------------	------	--------------	----	-------------

◎말씀 < 더러운 영은 버리고 >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카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가 “나 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며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자 어리석은 이를 사로잡고 마음대로 부러먹던 더러운 영은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 지 500년이 지났지만 교회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교 제일주의, 성장 우선주의라는 굴레에 빠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 마저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종교와 자본주의, 영혼과 물질의 동시부패라는 문제 앞에 우리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웃 종교를 ‘개독교’ 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의 처지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물질과 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은 사라지고 도리어 없어져야 할 것

들이 그 자리에서 땡땡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운 영은 관행, 습성, 타성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저항합니다. ‘회광반조(迴光返照)’ 요, ‘파사현정(破邪顯正)’ 이라. 이제는 불을 밝혀 우리의 내면을 날날이 비추고 샅된 것들을 몰아내어 맑고 바른 기운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숨(靈)은 맘껏 맞아들이고, 더러운 숨(靈)은 버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새로운 영은 없고, 없어야 할 더러운 영만 가득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겪어야 할 숙명은 진통이 따르더라도 고여 있는 더러운 영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중세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7)는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덕을 ‘버림’ 이라고 했습니다.

‘버림’ 은 영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며, 양심을 불태우고, 영을 깨우고, 소망에 생기를 주고, 하느님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버리고, 있어야 할 영은 애써 갖추어야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30일(화)	연중 제4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3,840.00 \$ 1,179.00
1월31일(수)	성 요한보스코 사제기념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55.00 \$ 165.00
2월1일(목)	연중 제4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원캠페인	\$ 303.00 \$ 0.00
2월2일(금)	주님 봉헌 축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0.00 \$ 600.00
2월3일(토)	연중 제4주간 토요일 (성모 신심미사)	오전10시30분	합 계	\$ 6,242.00
2월4일(일)	연중 제5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44명 성인: 198명
교무금봉헌자	최응철.윤태옥(1-2월)권영일(12-1월)장현철.김창영.김광희.권오돈.이재덕.현익균.김에릭 김형진.안병훈.안선미.나송희(1월)이대원(10-12월)김수환(7-10월)김성두(5-12월)이만구 (1-12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뇨?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졌다는 소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절망적인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악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냐며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도 있듯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서 계시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설사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기복 신앙이 될 위험이 크고 뿌리가 약해 유혹이 닥쳐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주의 존재와 질서정연한 법칙,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탄생과 성장, 양심이라는 불문율과 스스로의 존엄성, 나의 정체성과 이 모든 존재의 이유 등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명쾌하고 합리적인 답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빅뱅'이나 '진화론' 같은 과학이론을 진리인양 의심 없이 받아들여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탄생이든 또한 우주의 신비든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도 우주도 그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인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존재원인은 바로 신(창조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신(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보를 만든 사람은 볼 수 없어도 지금 내가 주보를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보를 만든 편집자가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신비스러운 나 자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보고 또한 그 속에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만드신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제 영역을 세세대대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고 제구실을 그만두지도 않는다.” (집회 16,27)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황애다/원정은.카타리나/성낙순.안나 백정심.막달레나/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 황순이.마리아/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 신용경.그레고리오/엄모니카/배미성.오틀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이충희.토마스의 영혼	안병훈.스테파노	생	이종만.모세,이영숙.데레사의 영육건강	진엘리사

◎ 누더기 옷 ◎
 --더러운 영(靈)에게 “나가라!” 말하시자
 내 속에있던 누가 벌떡 일어나 나갔다

 더러움과 욕심이 살다간 자국
 누더기 옷을입고 늪어만 가네

 (조창환.토마스 데 아퀴노.시인/최창원.니콜라오.화가)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p> <p>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916)860-3873</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사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 LA K-TOWN</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p> <p>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 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신세계여행사</p> <p>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